

R=VD 윤리와 사상 자작 모의고사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1.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비축해놓은 먹이가 없어 겨울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불구하고 새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 채 당장의 먹이만을 좇을 뿐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는 존재이다. ㉠은 인간이 동물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드러낸다.

- ① 이해 관계를 떠나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② 도구를 만들어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는 존재이다.
- ③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 ④ 숙고와 반성을 통해 삶의 개선을 위한 의식적 행위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자 초월자의 설리를 탐구한다.

2.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혼적이 없이 세계에서 노닐도록 해라.
 을 : 도공이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은 도공의 손에서 만들어 진 것이요, 도공의 성(性)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렇듯 성인(聖人)은 사려(思慮)와 인위(人爲)를 거둬서 예의와 법도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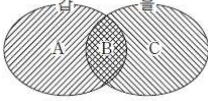
- ① 갑은 자연을 인위(人爲)적인 것이 없는 무질서의 세계로 본다.
- ② 갑은 인위 규범을 사회 질서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본다.
- ③ 을은 예를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인위적인 규범으로 본다.
- ④ 을은 사람의 본성과 인위(爲)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예(禮)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3. 다음 증세 서양 사상이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식 능력이 없는 자연적 사물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원동자(原動者)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을 :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 그 자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요,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을 말한다.
 병 : 신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이다.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고, 보편은 이름으로만 있다.

- ① 갑은 신을 유일한 실체이고 동시에 자연이라고 본다.
- ② 을은 악을 신이 창조한 하나의 실체라고 본다.
- ③ 병은 보편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신앙과 이성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절대선 그 자체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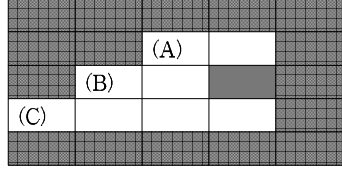
(가)	갑 : 부덕과 덕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다. 우리는 덕과 부덕이 발생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덕과 부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을 :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일 뿐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로 인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top: 5px;"> <div style="margin-right: 20px;">A: 갑만의 입장</div> <div style="margin-right: 20px;">B: 갑, 을의 공통 입장</div> <div>C: 을만의 입장</div> </div>

<보기>

ㄱ. A: 도덕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을 감정으로 본다.
 ㄴ. B: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선이라고 본다.
 ㄷ. B: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 쾌락의 양을 고려한다.
 ㄹ. C: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본 원리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를 설명할 때 옳은 것은?

(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이 지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 …중략… 이성이 욕구를 통제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이며 진정 자유로운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이성이 세운 도덕 법칙을 우리의 의지가 잘 따를 때 가능하다.
(나)	
[가로열쇠] (A) : 자성(自性)을 인식하여 한 번 깨달으면 끝장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강조한 불교의 종파 (B) :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해 옳은 일을 반복하는 행위. 맹자의 □□ (C) :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순전한 성품. 성리학의 □□□□	

- ①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이다.
- ② 도덕 법칙의 존중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 ③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 발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 ④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 ⑤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무조건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6. 다음 고대 동양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가야 하며,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숨겨져 있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은 없고 은밀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

- 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를 추구한다.
- ②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열반에 이를 것을 주장한다.
- ③ 우주의 운행 원리를 인간의 도덕 법칙의 논리적 기반으로 본다.
- ④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시비를 분별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 ⑤ 도(道)를 단지 자연이자 만물 생성의 근본 원리라고 본다.

7. 다음 동양 사상이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마음(心)은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고 의(意)는 마음이 발현한 것이며, 정(情)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성(性)을 알 수 없다.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은 성의 작용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을 : 이(理)란 마음의 조리이다. 이 마음이 어버이에게 드러난 것이 효이고 임금에게 드러난 것이 충이고 벗에게 드러난 것이 믿임이며,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변만화하는 모든 것들도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 ① 갑은 마음을 떠나서는 이(理)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갑은 이(理)를 기(氣)의 존재 근거로 본다.
- ③ 을은 뜻이 있는 곳이 곧 사물임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격물(格物)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앎과 행위의 일치를 도덕적 삶의 핵심으로 본다.

8. 갑, 을, 병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인간은 무지에 대한 자각과 선(善)에 대한 보편적 정의(定議)를 통해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존재이다.
 을 : 나라의 수립자들은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성향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배움에 이르도록, 그래서 '좋은(善)'을 보게끔 그 오르막을 오르도록 해야 한다.
 병 : 행복은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하루 혹은 짧은 시간 만에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

- ① 도덕성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가?
- ② 덕은 지식적인 측면과 품성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가?
- ③ 덕에 대한 참된 앎이 도덕적 행위판단에 도움을 주는가?
- ④ 현실 세계 속에 참된 존재가 존재하는가?
- ⑤ 악을 선으로 잘못 알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가?

9.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이 구속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칙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보존과 만족스러운 삶의 전망 때문이다. ...중략... 어떤 가공할 힘이 존재하여 인간이 그 힘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한 징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고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을 : 경제적 불평등은 구성원의 행복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와 계획 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자유, 평등,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① 갑은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최상의 체제를 민주주의로 본다.
- ② 갑은 인간을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고 본다.
- ③ 을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상대적 평등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 ④ 을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시기에 공산 사회가 도래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본다.

10. 다음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현명한 군왕은 백성의 생업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양육하기에 충분하게 해 주어, 풍년에는 배불리 먹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이끌어 착한 곳을 가게 하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따르기가 쉬웠던 것이다.
 을 : 무릇 둘 다 귀(貴)하면 서로 섬길 수 없고, 둘 다 천(賤)하면 서로 부릴 수 없으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중략...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막힌다. 선왕이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나누고, 빈부와 귀천의 등급이 있게 하여 서로 임하기에 충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화를 기르는 근본이다.

- ① 갑은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을 가지게 한 후 항심(恒心)을 지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의리합일(義利合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사람이 예의를 쌓으면 군자가 되고 성정(性情)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을 하늘과 관련 없는 존재로 본다.
- ⑤ 갑, 을은 성(性)을 교화함으로써 다스려야 할 존재로 본다.

11.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 ㉠~㉣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 다음 현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풍요로운 민주 사회에서 정의는 제도의 제1덕목이 된다. 사회 체제는 효율성과 상관없이 상당한 부정의가 있을 경우 개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준다는 효율성의 논리로 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학생 답안
이 사상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 지위를 알지 못하는 위초적 상황을 가정하여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서로를 시기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도출된 합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지라도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공유자산으로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우주가 원자의 집합이든, 질서 있는 체계이든, 우선 나는 자연이 지배하는 만유(萬有)의 한 부분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내가 만유의 한 부분인 한, 우주로부터 나에게 할당되는 일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을 :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쾌락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 ...중략... 그 쾌락은 몸에만 있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① 갑은 정념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과 신과 세계의 본성이 같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④ 을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충족을 인정한다.

13.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다르듯이 정에도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습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정만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하는 것입니다.

< 보 기 >

ㄱ. 이(理)를 형태와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ㄴ. 성(性)을 이(理)가 기질에 내재되어 그 사물의 본성으로 정립된 것으로 본다.
ㄷ.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
ㄹ. 이(理)를 존귀한 것으로, 기(氣)를 비천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덕이란 인간이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다. 정신의 최고 덕은 신, 즉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념을 통제 내지 억제하지 못함을 예속이라 하며, 이성은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을 :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명증적으로 참되다고 안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① 갑은 최고의 인식과 최고의 행복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성적 인식이 인간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15.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답론을 통해 도달되는 합의는 개인의 “예” 또는 ‘아니오’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중심적 관점의 극복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정한 후, 정책 결정을 대표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열린 토론으로 사회 쟁점에 관해 심의해야 함을 간파하고 있다.
- ② 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간파하고 있다.
- ③ 의사결정을 다원화하여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의 원리가 중요함을 간파하고 있다.
- ⑤ 모든 사람에게 열린 토론의 기회를 개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16. 다음 조선 후기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히 여기면서도 가서 구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인(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중략...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라는 네 가지 마음은 인성(人性)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며, 사덕(四德)은 이 네 가지 마음을 확충한 것이다.

- ① 측은지심은 마음에 인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인가?
- ② 인간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선천적으로 가지는가?
- ③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닌 마음의 기호(嗜好)가 사단인가?
- ④ 인간의 덕(德)은 본성(本性)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인가?
- ⑤ 인간은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녔는가?

17. 다음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싫증을 모른다. ...중략...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을 : 인간은 삶에의 의지가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된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이다. 인간은 이 욕망을 품고 지상에서 살아간다. 그는 매일 새롭게 생기는 요구들에 시달리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동안 걱정하며 살아간다.

- ① 갑은 하나의 원인에 의존하여 자연 만물이 생성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아집(我執)을 버리고 윤회(輪廻)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모든 생명체에게 동정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맹목적인 의지를 이성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탈해야 한다고 본다.

18.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먼저 밖으로부터 감응(感)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안에서 저절로 이(理)가 발(發)한 것을 측은지심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없이도 효가 발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사람의 참된 정(情)이겠습니까?

- ① 칠정을 외부로부터 감응되어 발한 정(情)으로 본다.
- ②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 ③ 이는 본연이며 통하고(通), 기는 재료이며 국한된다고(局) 본다.
- ④ 사단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 ⑤ 기(氣) 없는 이(理), 이 없는 기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을 : 진리가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병 :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하나의 존재, 어떤 개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인간이다.

- ① 갑은 수동적인 태도로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윤리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 을은 신과 대면함으로써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병은 개체가 보편보다 앞서 존재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이성을 통해 주체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만약 재무성이 낮은 병들에 지폐를 채우고 그 병들을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그 위를 지면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 덮은 다음에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자유방임의 원칙에 따라 개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는 일을 하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을 :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성과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① 갑은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의 작동 원리로 본다.
- ② 갑은 생산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적 소유권을 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